



2000 국내 농약 생산·출하 어떠했나?

출하량·매출액 모두 제자리 걸음 업계, 어려움 가중 될 듯

출하량 1.0%↑, 출하금액 0.9%↑로 헛품 팔아
수입액 대폭 늘고 수출액 줄어, 기형구조 형성

- 업무부 -

지난해 우리나라 농약 생산·출하량을 보면 하반기 이후 환율변동 등을 감안하여 악년도 사업분의 조기 생산물량이 증가한데 따라 생산량은 다소 늘었으나 출하량은 전년도와 같아 16.9%가 증가한 99년도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량의 정체 내지 감소 현상과는 달리 신제형 등으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세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지난해는 0.9% 증가한데 그쳐 농약업계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 한해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농약공업협회가 최종 집계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작물별 생산·출하량을 보면 수도용 농약은 살균제는 강보합세를 보여주었으나 살충제가 현저히 줄었으며 원예용 농약은 병해충 다발 생으로 살균제·살충제 모두 증가함으로써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제초제는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으나 수도용 보다는 원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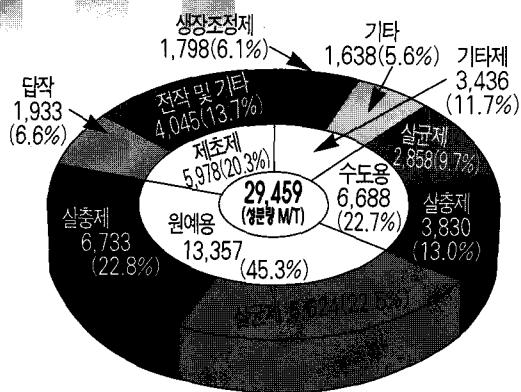
용 제초제가 약간 증가함으로써 수도용 제초제의 부진을 만회해 주었다. 기타제는 생장조정제의 강세로 약하지만 전년도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 농약 생산·출하상황을 작물별·약제별, 형태별로 상세히 알아본다.

농약 생산·출하상황

생산

2000년도 농약생산량은 2만9천4백59톤으로 '99년도 2만6천2백64톤보다 12.2%가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하반기 이후 환율변동 등을 감안하여 악년도 사업분의 조기 생산물량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작물별로 보면 수도용농약은 6천6백88톤으로 7천5백46톤을 생산한 전년도에 비해 11.4% 감소한 반면 원예용농약은 1



〈작물별 약제별 생산량 구성비〉

만3천3백57톤으로 전년도 1만7백17톤에 비해 24.6%나 증가했다. 역시 강세를 보인 제초제는 5천9백78톤으로 5천4백31톤을 보인 전년도 보다 10.1%가 늘어났으나 이는 원예용제초제의 영향이 컸다. 생장조정제 등 기타제는 3천4백36톤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강세를 보였다.

이를 형태별로 보면 유제가 1만2천1백63톤으로 전체의 41.3%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화제가 9천6백89톤으로 32.9%를, 입제가 5천2백4톤으로 17.7%, 수용제가 2.5%, 분제가 0.7%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화제와 유제는 전년도보다 각각 21.3%, 18.5% 증가한 반면 분제는 31.9%, 수용제는 14.4%가 감소함으로써 사용하기 편리한 제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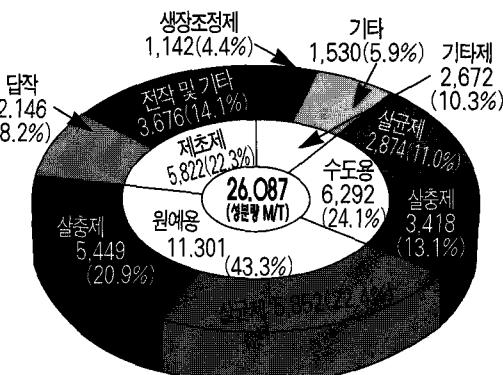
한편 용도별 점유율을 보면 살충제가 1만5백 63톤으로 전체의 35.8%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살균제가 32.2%를, 제초제가 20.3%, 기타제가 11.7%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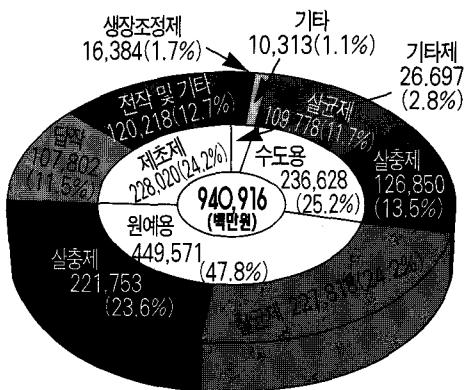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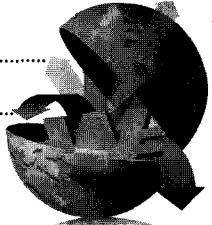
2000년도 농약출하량을 보면 2만6천87톤으로 전년도 2만5천8백37톤 보다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매출액 역시 9천4백9억원으로 9천3백27억원 보다 0.9% 늘어나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힘든 한해였음을 입증해 주었다.

약제별로 보면 살균제는 8천7백26톤으로 8천820톤을 출하한 전년도 보다 8.0%가 증가한 반면 살충제는 8천8백67톤으로 전년도 9천5백44톤 보다 7.1%가 감소하였다. 제초제는 5천8백22톤, 기타제는 2천6백72톤으로 전년대비 4.0%, 2.2% 각각 소폭 증가에 그쳤다.

작물별로는 수도용 살균제가 2천8백74톤으로 전년도 보다 9.8% 늘어난 반면 살충제는 3천4백18톤으로 전년도 보다 무려 26.3%나 줄었다. 원예용농약은 살균제가 5천8백52톤으로 전년에 비해 7.1% 증가하였고 살충제 역시 5천4백49톤으로 11.1%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제초제는 답작이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



〈작물별 약제별 출하량 구성비〉



〈작물별 약제별 매출액 구성비〉

한 2천1백46톤을 출하하였으나 전작 및 과원 잡초약은 3천6백76톤으로 7.0%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농촌노동력을 대신해 주고 있다. 또한 기타 약제중 생장조정제는 1천1백42톤을, 기타제는 1천5백30톤을 나타내 1천1백29톤과 1천4백86톤의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매출액 기준 작물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원예용농약이 4천4백96억원으로 47.8%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도용농약이 2천3백66억원으로 25.2%를, 제초제는 2천2백80억원으로 24.2%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한편 생장조정제 등 기타제는 2백67억원으로 2.8%를 차지했다.

농약 수입·수출상황

수입

2000년도 농약수입총액은 전년도 3억1천7백59만\$보다 13.0% 증가한 3억5천8백83만\$로 나타났다. 이중 원제가 78.8%인 2억8천2

백75만\$로 나타나 전년도 2억3천9백59만\$보다 18.0%가 증가하였다. 완제품은 7.4%인 2천6백52만\$로 전년도 1천8백71만\$보다 무려 41.8%가 증가하였다. 반면 합성원료는 13.8%인 4천9백56만\$로 나타나 5천9백30만\$의 전년도 보다 16.4%가 줄어들었다.

이를 수입국별로 보면 일본이 9천3백99만\$로 26.2%를, 미국이 5천93만\$로 14.2%를, 독일은 4천9백62만\$로 13.8%를 각각 차지해 총 수입액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프랑스 등 20여개국에서 수입되었다. '99년도에는 일본이 8천9백79만\$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5천9백42만\$을 차지해 이들 3개국이 총 수입액의 57.6%를 차지했었다.

농약원제 국내 총 수요는 4천7백99억원으로써 이중 수입원제가 3천3백93억원(2억8천2백75만\$), 국내합성원제가 1천4백6억원(1억1천7백15만\$)으로써 수입의존도는 70.7%로 나타나 '99년도의 66.5% 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2000년도 농약수출은 4천2백76만\$로 5천60만\$의 전년도 보다 15.5%가 줄어들었다. 이중 농약원제는 총 수출액의 97.3%인 4천1백60만\$로 전년도 4천6백78만\$보다 12.1%가 감소하였으며 완제품 역시 2.7%인 1백15만\$로 전년도 3백81만\$ 보다 30.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교역국을 보면 프랑스가 27.4%를, 영국이 24.8%를 차지했으며 일본 5.2%, 대만 3.9% 등 약 20여개국이다. [농약정보]